

형님 보다 나은 아우... 한 번 충전으로 서울서 부산까지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세련된 디자인 '호랑이코' 재해석 국내 주행가능 거리 450km 이상 전장 4680mm, 전폭 1880mm

“기아 단단히 버리고 내놓은것 같네요.”

최근 서울 성동구 코사이어티에서 진행 EV6 공개 현장에서 실내 공간감과 디자인을 두고 잇따라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가 올해 초 내놓은 첫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와 대결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이오닉5가 뛰어난 공간 성을 앞세워 전기차의 정석을 보여줬다면 기아의 EV6는 정석을 넘어 매력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소비자별로 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두대의 차량을 놓고 선택하라면 기아는 EV6를 선택하고 싶다.

이날 기아는 EV6 스탠다드 모델, GT-Line 모델, GT 모델을 공개했다. EV6는 제작단계부터 주행성능에 초점을



기아 EV6 실내 모습



기아 EV6 전측면

/양성운 기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5보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곡선을 많이 활용했다. EV6는 전기차의 이미지에 맞춰 기존 '호랑이코' (타이거 노즈)를 재해석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주간 주행등(DRL)과 어우러져 한층 세련되고 다이내믹한 느낌을 부여한다.

전면 범퍼 하단에 위치한 공기 흡입구는 EV6를 한층 더 시각적으로 넓게 보임과 동시에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조한다. 전기차의 평평한 바닥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기저항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액티브 에어 플

랩(AAF)도 적용돼 공기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 공기저항을 감소시켜 준다. 사이드 하단에서부터 리어 휠하우스를 관통해 테일 램프까지 이어지는 '다이내믹 캐릭터'가 강력한 존재감을 부여한다.

또 EV6는 공력으로 리어 윈도우의 물방울을 제거하는 기능을 더한 윈 타임 루프 스포일러가 적용돼 별도 와이퍼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아이오닉5에도 적용된 기능이다. 또 고급 세단에 적용된 '시퀀셜 라이팅'도 기아 EV6에 포함됐다.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 순서

대로 노란불이 들어와 고급감을 더해주는 기능이다.

EV6는 전기차의 강점인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다. 운전자를 중심으로 넓게 배치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슬림한 대시보드와 함께 차량의 내부를 더욱 넓어 보이게 한다. 중앙에 떠 있는 듯한 센터콘솔은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전달한다. 다만 1열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오닉5에 탑재된 유니버설 아일랜드는 적용하지 않았다.

차체의 크기는 전장 4680mm, 전폭 1880mm, 전고 1550mm, 축간거리 2900mm

다. 아이오닉5보다 휠베이스가 100mm 짧지만 실내 공간은 여유롭다. 2열 승객 기준 중형 SUV 이상의 공간감을 제공한다. 현대차 신형 투싼보다 길고 크다.

전기차를 선택할 때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행가능 거리는 기아 EV6가 아이오닉5보다 뛰어나다. 기아 자체 측정에 따르면 EV6 롱레인지 기준 국내 주행가능 거리가 450km 이상이다. 환경부 공식 기준으로 측정해도 이보다 더 길게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기아 EV6가 아이오닉5 배터리 용량(72kWh)을 앞서는 77.4kWh 배터리 용량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V2L(Vehicle to Load)·800V 초급속 충전은 동일하게 쓸 수 있어 아이오닉5의 단점을 개선했다. EV6의 V2L 기능은 일반 가정의 시간당 평균 전기 소비량인 3kW보다 높은 3.6kW의 소비전력을 제공한다. 배터리는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제품을 선택했다.

EV6 스탠다드와 GT-Line은 다음달, GT는 내년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눈 편한 LG 올레드 TV로 우리아이 원격 교육

웹OS TV 전 제품에 하이브로 앱 매직리모컨으로 TV화면 조작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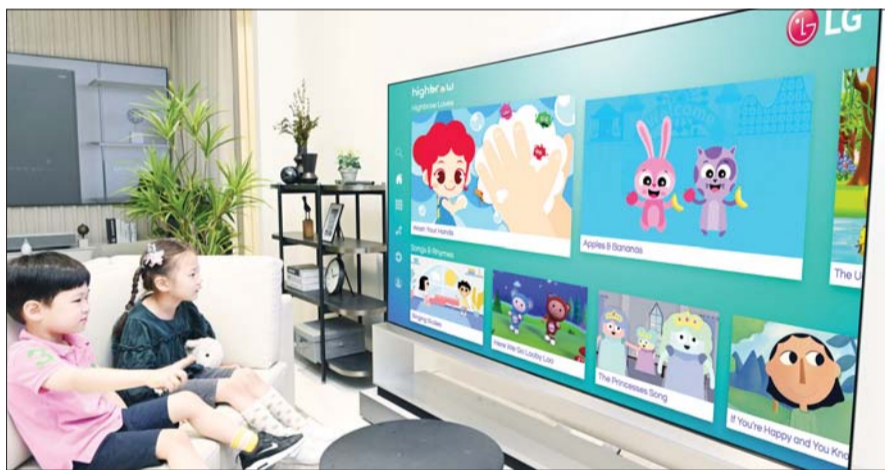
LG 올레드 TV가 눈이 편안한 장점으로 비대면 교육 시장에 뛰어들었다.

LG전자는 2018년 이후 출시한 웹OS TV 전 제품에 하이브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앱은 어린이를 위한 글로벌 교육 콘텐츠 구독 플랫폼이다. LG 콘텐츠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언어와 수학 등 인문학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교육용 동영상 1만여편을 대화면 TV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

이 앱은 145개 국가에서 제공하며, 나이에 따라 관심 분야별 맞춤형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영국 유아 조기 교육과정(EYFS)에도 채택된 전문성을 인정받는 플랫폼이다.

올레드 TV는 뛰어난 화질은 물론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TV다.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면서 아



LG전자는 올레드 TV에 교육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LG전자

이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매직리모컨(국내명: 인공지능리모컨)은 마치 PC에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것처럼 TV 화면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비대면 고객에 유용하다.

LG 올레드 TV의 청색광 방출량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동일 인치대 프리미엄 LCD TV의 절반 가량이다. LG 올레드 TV 전 모델은 세계 최초로 눈 안

전 특화 인증기관 아이세이프(eyesafe)가 TÜV라인란드(Rheinland)와 공동 개발한 아이세이프 디스플레이(Eye safe Display) 인증을 받았다.

UL로부터 화면 깜박임이 없음을 인정받은 플리커 프리 인증도 획득했다. 국제암연구기관이 발암물질로 분류한 카드뮴(Cd), 인화인듐(InP) 등이 포함된 부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등 독성 물질도 최소화했다. /김재용 기자 juk@

노블클라세 L13, TV광고로 만난다

최상위 대형 리무진 차량

고급 리무진 노블클라세 L13이 TV 광고에 나선다.

케이씨모터스는 신규 TV 광고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왕관의 화려함 보다는 VIP들이 가진 사회적 무게감'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메시지를 야생이 지배하는 사자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노블클라세 L13은 케이씨모터스가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 개발한 최상위 대형 리무진 차량이다. 3세대 스프린터 519 CDI 롱바디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스타 엠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 컴포트 시트와 ▲VIP석 전용 음성인식 컨트롤 기능 등을 강화해 VIP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프리미엄 컴포트 시트는 ▲최고급 가죽과 ▲리클라이너 시스템이 적용돼 안



케이씨모터스 신규 TV 광고

락한 이동 공간을 제공한다.

차량음성인식기능은 1열 운전석 중심이던 음성인식기술을 2열 VIP석에 확대 적용해 15.6인치 스마트 글라스도 컨트롤 할 수 있다.

운전석과 VIP석 사이를 센터 파티션으로 완벽히 분리한 풀 파티션 모델과 차량 실내공간의 전반적인 개방감을 중시한 하프 파티션 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센터 파티션에는 ▲32인치 대형 스마트 모니터와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했다. 고속도로 전용 차선 이동도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프로젝트 루프, 폐페트병으로 자원 순환

롯데케미칼, 총 8개 업체 참여

'Project LOOP'가 두 번째 친환경 제품으로 파우치 2종과 카드지갑 1종을 출시했다.

롯데케미칼은 7일 Project LOOP는 지난해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국내 순환 경제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 8개 업체가 힘을 모아 탄생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과 임팩트스퀘어가 프로젝트의 코디네이션을 맡았고, AI 기반 순환 자원 회수 로봇 개발 업체인 수퍼빈이 폐페트병 자동 수거기인 네프론을 설치했다.

폐페트병 분쇄 및 제조는 금호섬유공업과 디와이폴리머,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섬유 원사 제작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재활용 섬유 원사를 활용한 제품 제작은 LAR, 비온드, 리벨롭이 맡아



김정기 작가와 콜라베이션한 'Project LOOP' 친환경 소재 제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김수지 기자

퀴즈 맞는 고객에 1500포인트

제주항공은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제주항공 모바일 앱과 웹, 홈페이지를 통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퀴즈를 맞는 고객에게 1500포인트를 증정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앞뒤 좌석 간격을 넓힌 '비즈니스라이트 항공권', 항공 운송용 자전거 캐리백을 제공해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송해주는 '캐리백' 구매 고객에게는 1만5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제주항공 리프레시포인트는 기존 항공사의 보너스항공권 개념에서 벗어나 적합한 만큼 자유롭게 쓰고, 부족한 포인트만큼 구입해서 쓸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이며 제주항공의 항공권 및 사전 수하물, 사전 주문 기념품 등을 구매하거나 사전 좌석 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급된 포인트의 사용기한은 적립일로부터 3개월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